

개 회 사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겨울을 보내기가 더욱 힘들었을 테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시대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치는 양쪽으로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세대의 갈등까지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상황들은 직할교구 스님들과 사찰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직할교구 주지스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안은 겨울 한파와 같고 언 땅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견디고 싹을 틔우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난날 스님들의 걱정과 마음 씩씩이가 바로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진력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할교구는 2008년 1월 직할교구 사무처를 개소한 이래 조직화되고, 점진적으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높아지는 위상만큼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역할은 수도권 포교와 조직력 강화, 승려복지 활성화 등 종단목적사업 동참, 대승보살의 서원을 담은 지역사회 공헌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직할교구는 서울시를 모태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이 관할구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불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 상태로 10년, 나아가 20년이 흐르면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명백하기만 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불자 층이 매우 줄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불교의 백년대계에 남의 일처럼 관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종단 구성원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숙명이며, 종단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싹 틔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할교구는 서울지역 주지스님들과 연대하여 '서울지역 주지협의회'라는 행정구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위사찰별로 진행하던 포교, 복지사업이 좀 더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것이기에 더욱 효율적이고 교구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사찰별로 진행하는 개별적이고 일회성의 사업들이 지역별로 연대하여 정례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환원적 복지사업과 수도권포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포교 활성화 사업에 다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의를 모아 간다면, 직할교구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행과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종단 처음으로 제도화한 승려복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스님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종단 역사상 오랜간의 숙원이었던 승려복지는 그 의미가 퇴색할 것입니다. 반대로 승려복지의 활성화는 결국 승가와 불교를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주는 또 하나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지스님 여러분!

우리 종단은 올해 '세상과 함께하며 희망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소통과 화합', '자성과 쇄신'을 역점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그릇된 관행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러한 허물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뿌리부터 고쳐 나가기 위한 쇄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종단 안정을 찾으려는 모두의 발원속에서 서서히 쇄신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종도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며 한발 한발 내딛어 갈 것입니다. 직할교구의 모범이 종단 쇄신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종도와 국민이 신뢰하는 종단을 이루어 가도록 신심과 원력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